

‘바닥 근접’ 中 탈출 러시... ‘AI 돌풍’ 미국에 투자금 몰려

中 증시 보관액, 올해 최고치比 14% ↓
규제 강화·경기 악화 등에 하락세
美, 엔비디아 필두 보관금액 17% ↑



/유투이미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한 자금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증시는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돌풍에 힘입어 투자금이 몰리는 추세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8월 중국 증시 보관금액은 8억5100만 달러(약 1조1409억원)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보관금액이 있었던 3월의 9억8400만 달러(약 1조3193억원)보다 약 14% 감소했다.

올해 2월 9억7500만 달러(약 1조3074억원)에 달했던 중국 증시 보관금액은 3월 잠시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매도세만 봐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해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증시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 증시가 좀처럼 장기 하락

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 상황의 지표가 되는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종목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는 3일 3274.22를 기록하며 전일보다 9.21 오

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52주 최고(지난해 9월 4일)를 기록한 3854.2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5월 3700선에 닿으며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CSI300 지수는 이내 내리막을 걸었다.

중국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비롯해 경기 악화, 중국 본토 부동산 경기 침체, 미국과의 갈등 고조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8월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872억2667만 달러(약 116조9710억)에 달했다. 중국 증시가 올해 최고 금액을 보유했던 3월,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748억2887만 달러(약 100조3455억원)로 중국 증시 보관금액이 줄어들 때 미국 주식은 약 17%가량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증시의 순유출이 이어질 수 있지만 과도한 우려 보다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에 대해 “최근 경기와 투자자 수급이 좋지 않고, 외국인의 주식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바닥에 근접했지만 낮은 구간에서의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중국의 통화 정책 집행 여력이 강화할 전망이다”이라며 “제약·바이오, 일부 테크 기업, 방산 등 성장 업종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기 반등 폭이 제한적이나 현재의 비관론도 일부 과도하다”며 “하반기 중국 관련 원자재 수요 부진을 경계하되, 중국 증시 부양책과 금리 인하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엔비디아’ 향한 엇갈린 투심... 순매수·매도 전부 우위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추종 ETF·개별종목 매수 분기 지날수록 매출총이익률 감소 우려 AI 칩 ‘블랙웰’ 출시 등에 평가 갈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미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엔비디아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순매수했다. 다만 순매수·매도 우위를 전부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 차지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투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8월 27~9월 2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그라나이트셰어즈 2X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로 약 8605만 달러(1154억원) 사들였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상승장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 개별 종목은 5400만 달러(724억원)가량 사

들이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를 이어갔다. 지난주 실적 발표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서학개미들의 순매수세는 지속됐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렸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 올해 2분기 매출이 300억 400만 달러(40조2593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22% 증가한 동시에 시장예상치를 웃돌면서

‘깜짝 실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지난달 19일 130.00까지 오르며 상승 랠리를 보였지만 이를 만에 8.34%가 떨어진 것이다.

안소는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실적 결과와 가이던스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서프라이즈 강도는 지난 분기에 이어 약화됐다”며 “컨센서스 평균값과 실제값을 비교한 서프라이즈 퍼센티지뿐 아니라 컨센서스 분포를 고려한 표준화 서프라이즈(SUE)도 4개 분기 연속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투자 매력 측면에서 실적 자체의 성과보다 실적 성장세가 주목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의 출시 등 호재가 남은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분기가 지날수록 매출총이익률이 감소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양산됨에 따

라 수율이 개선되고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전작인 호퍼 기반의 H100, H200의 수요가 견조함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랙웰 생산량은 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6년 회계연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호퍼칩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블랙웰 수익도 더해지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엔비디아의 향방이 갈리는 시점인 만큼 시장에도 혼란이 반영됐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 관련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엔비디아를 6억3947만 달러(8580억원) 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반도체 강세에도 레버리지 투자에 대응하면서 공격적인 투심을 보였다. 동일 기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볼 3X’ ETF를 6054만 달러(812억원) 순매수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윤창현 전 국회의원 신임 사장으로 선임



코스콤은 3일 서울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창현 전 국회의원(사진)을 코스콤제20대 대표이사·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신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금융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윤 신임 사장은 1995년부터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한 뒤 지난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이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토론회(토론회)를 하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 증권 분야의 굵직한 이슈를 이끌었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 신임 사장은 “앞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쟁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STO 법제화가 다시 논의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둘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토론회) 법제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다음주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토론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에서 토론회(토론회) 법제화를 재점화했다. 윤 신임 사장이 자동 폐기됐던 STO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STO 법제화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 기자

NH투자증권, ‘나무팍’으로 해외투자 접근성 ↑ 삼성증권, 법인 주식보상제도 전용 시스템 열어

‘농장 키우기’ 콘셉트 도입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나무팍’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무팍’은 주식을 마치 농작물을 키우듯이 관리하며 성장시키는 투자농장 콘셉트로, 매일의 투자 루틴을 형성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플랫폼이다.

‘나무팍’은 해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입 장벽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농장 키우기’ 콘셉트를 도입했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나무팍 핵심 아이디어는 농장 관리를 하듯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나무팍’을 통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후 원하는 금액만큼 매수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자동으로 매수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단돈 천원부터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안정적인 배당주, 그리고 분산투자의 장점이 있는 ETF 등 다양한 종목으로 자신의 농장을 구성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 제공

삼성증권이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시스템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는 기업 고객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 복지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법인의 임직원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설계를 비롯해 세무 프로세스 지원, 임직원 대상 재무 상담 등 폭넓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2011년 국내증권사 최초로 외국계 법인의 주식보상 관리를 시작으로 14년간 임직원 3만명의 2조 이

상 국내외 주식보상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초대형 IT 기업 등 국내외 다수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부터 실제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연규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글로벌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식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10년 넘게 쌓아온 임직원 주식보상 서비스 노하우와 축적된 세무·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사 주도 컨설팅을 통해 법인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